

창작 여정에서 만난 따뜻한 '시조공동체'

10년 동인 활동 '광주문학아카데미' 첫 작품집 '흘러내리는 기-역' 출간 시·아동문학 장르까지 문호 넓혀

시조의 원래 명칭은 '시절가조(時節歌調)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일컫는다. 문학 장르로서의 명칭인 '단가(短歌)'가 보편적으로 사용됐으나 지금은 시조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된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작품이 정제됐으며 고시조로부터 현대시조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올해로 창간 10년째를 맞는 시조 동인 '광주문학아카데미'는 최근 첫 동인집을 발간하는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이후에 참여한 시인들도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나 시 전문지 등을 통해 창작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장르 또한 시조를 넘어 시와 아동문학, 평론까지 문호가 넓어졌다.

그럼에도 이들이 견지하는 원칙이 있었다. "각자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안목을 가진 입장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모임을 지속해올 수 있는 요인이었다.

염창권 시인(광주교대 교수)은 "여러 성과와 함께 염려도 생겨났는데, 그 동안의 과정과 실제화되지 않았던 모습을 책의 형태로 선보이기로 하면서 이번에 동인집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광주문학아카데미는 각자의 개성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모토를 뒀다. 대개의 동인들이 문학적 열정과 성취를 상징하는 탓에 날카로운 비평과 경쟁을 펼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광주문학아카데미는 "예술적인 기질보다는 인간적 품성이 우선"을 두고 모임을 꾸려온 덕분에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이런 모임 특성으로 따로 회장이라는 직함을 두지 않는다. 다들 개개인인 문인의 자격으로 모임에 참여한다. 대신에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공자하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이송희 시인이 사무국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최양숙 시인은 "지역의 시조문단이 침체돼 있고

저변확대로 미흡하지만 광주문학아카데미가 시조의 중심을 잡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합평회 때는 시조나 시,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함께 보며 격려와 아울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주간에 개최했던 '작가 스테이지'에도 참여해 독자와 문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나주 읍성을 비롯해 나주 근대문화공간, 목포 문화공간 등을 방문해 문학작 감수성을 충전하기도 했다.

이번 책 발간은 이송희 시인이 광주문화재단 기초예술단체지원사업에 응모해 지원금을 받아 이뤄졌다.

책에는 '민들레' (고성만), '갈매기 살' (김강호), '보름달' (김화정), '자두화' (박성민), '마음의 바깥' (박정호), '거짓말의 거짓말' (백애송), '그곳으로 돌아온 그는' (염창권), '테이크아웃해 주세요' (이송희), '명자나무 분재 만들기' (이토록), '별화' (임성규), '사나흘 은자(隱者)처럼' (정혜숙), '간절기' (최양숙) 등의 개성있는 작품이 실려 있다.

이송희 시인은 "모임 일주일 전에는 짧은 시, 단 시조를 sns에 공유해 좋은 작품은 선물도 주고 창작 동기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합평회, 출판회 등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내실있게 꾸려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문화와 예술, 전통에 담긴 멋과 향

화순 출신 강동원 박사 '남도 사람들' 펴내

"80고개를 넘어 굽어보는 만상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황혼의 별판이다. 눈시울이 무색케 급변하는 물질주의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철학을 모두 무너뜨리는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나 홀로 고애자(孤哀子)가 되어 통곡하는 심정이다."

화순 출신 춘곡(春谷) 강동원 박사가 남도 문화와 예술, 전통에 담긴 멋과 향을 담아낸 '남도 사람들' (역락)을 펴냈다.

저자는 그동안 고조선사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사서를 섭렵했으며, 고향 화순에 국조전을 건립하는 등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진주보석이 모두 진흙 속에 버려지는 모습이 안타까워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 때문이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남도의 풍류'로 여기에는 서석(瑞石) 시인들의 모란재 이야기를 비롯해 무용가 한진옥 선생에게 춤을 배운 이야기, 소리꾼 단산(丹山)의 정겨운 이야기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광남 풍류회



이야기, 이매창 추모와 백마강 선유 이야기 등도 만날 수 있다.

2부는 '사람의 향기'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과 관련된 인물을 소개한다.

여기에서는 서석동에는 거한다는 의미의 호를 지녔던 서은(瑞雲) 문병란 시인을 비롯해 이 시대를 밝힌 청화(淸華) 큰스님의 인연도 소개한다. 참사랑의 향기를 알게 했던 어느 이름 없는 단감 장수의 할머니와 화순 무명용사·순국 경찰추모제 이야기의 비록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데 일조했던 이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다. 강 박사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온고지신을 아끼는 우리 후학들에게 지난날의 한 단편을 전해주고 싶은 충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대전대학교에서 단군 성조의 삼원 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도민속도', '양주방', '단가사설집', '화순의 전설' 등 편·저서를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4절기 따라 춤·노래·음악으로 풀어낸 여성의 삶

ACC 10월 3일 '마디와 매듭' 공연

1년 24절기는 자연의 시간으로 모든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과거 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자신들에게 전수됐지만 디지털 세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대 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했던 시간은 우리의 우리를 만들었다.

여성의 삶을 24절기로 풀어낸 선보임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3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무용 '마디와 매듭'을 펼친다.

작품은 여성들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딸, 아내, 엄마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삶을 24절기 변화에 따라 춤과 노래, 음악으로 풀어낸 것. 작품은 아시아문화원과 두덴스시어터가 제작했으며 2020 ACC 창작공연 공모전 '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춰주세요' 대상 수상작 내용 일부를 모티브로 했다.

연출-안무는 한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안무



무용수 박기량

가 가운데 한 명인 정영두가 맡았다. 대부분은 근현대사 속 개인의 삶을 주목해온 배삼식 작가가, 작곡은 연극,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최우정 작곡가가 맡았다.

이번 공연은 24절기 중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등 여섯 절기의 시간을 담았다. 여인들의 생활상을 춤과 노래,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로 그려낸다. 무용수 박기량, 김단우, 장서이, 김정수, 한지향과 소리꾼 김나리(정가), 김무빈(서도민요), 조아라(판소리)가 출연하며, 박명규(대금), 이송훈(클라리넷), 김준수(타악), 황경은(건반)이 연주를 맡았다. 공연은 무료이며 ACC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 문의 062-601-46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 '두근두근 목정밭' 펴내

'목정밭'은 오랫동안 버려져 거칠어진 밭을 일컫는다.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그곳의 풀쑤에도 무수히 많은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의 '두근두근 목정밭' (책고래이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동화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민구 할머니네 밭이 이야기다. 허리를 다친 민구 할머니가 서울 아늑한 집으로 떠난 사이 할머니네 밭에 집 없이 떠도는 생명들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개망초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벌과 나비, 풍뎉이, 무당벌레, 거미도 들어온다.

그러나 얼마 후 목정밭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머니가 더 이상 밭을 가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 민구 아빠가 밭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민구는 할머니가 물리치료받지 않으면 다시 밭을 가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할머니는 밭에 씨 뿌리고 가꾸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한다. 결국 민구 아빠도 마음을 돌리게 된다.

동화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할머니네 밭의 푸근한 마음씨를 보여준다.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나아가 하루하루 실 자리를 잃어가는 '자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윤산현 동화작가는 "짧은 서사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언어를 담고 있다"며 "인간과 자연, 소중한 삶의 가치 발견, 그리고 공존과 화해, 목정밭이 품고 있는 관계의 끈과 그 상징적 의미와 그것이 안겨주는 위기가 크다"고 평한다.

한편 이 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영명이에 빨랐다', '입안이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벉건 날다!', '손가락 체온계' 등을 펴냈고 이경자문예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오늘 '젠더갈등과 성평등' 좌담회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30일 오후 2시부터 특별좌담회 '20대남자현상 무엇을 말하는가?: 젠더갈등과 성평등 지평도'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좌담회는 추주희 전남대학교 HK연구교수가 좌장을 맡고 '20대남자현상'에 대해 총 네 명의 참가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먼저 문화평론가이자 '한국, 남자를 펴낸 최태섭 작가는 '20대남자현상'과 '한국의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청년동아

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박스'에서 활동중인 김민국 활동가는 "보통의 청년 남성이 말하는 '이대남 현상'에 대해 다룬다.

지인영 청년여성 활동가는 '페미니스트 백래시, 출구가 없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광주여성민우회의 도담 활동가는 반페미니즘 현상의 여성주의적 대응과 전략에 대한 견해를 나눈다. 유튜버로 생중계된다.문의 062-670-05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
| <p>(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p>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가·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 <p>법무사 황영수 사무소</p> <p>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대백리빌 소송, 민사권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 <p>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p>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구,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 | <p>문화결혼상담소</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 | |
| <p>다흥치마 한정식 전문</p>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 <p>해미패션</p> <p>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p> | <p>(주)K&J컴퍼니</p> <p>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체계적, 신재생에너지 체계 원금보장, 안정된높은 수익 ☎ 1899-1972</p> | <p>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p> <p>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p> | <p>한국기원</p> <p>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p> |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
|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p> | <p>필스제화</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리)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 <p>씨니헤어샵가발</p> <p>나주시 성북동 4거리상대지텔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p> | <p>송가네 반찬</p> <p>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
|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 <p>남도철학원</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 <p>대신청소전문기업</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p> | <p>동태랑대구랑전문점</p> <p>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p> |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